



2026

우체국 문화전

접수번호

기입 금지

제34회 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글짓기 대회

응모구분 초등저학년(1~3학년)

제 목 우체국의 사랑 대물림

우리 외할아버지 집 앞 정겨운 우체국은 “예지야! 하찌랑 사탕 먹으러 가자.” 하시며 내 손을 꼭 잡고 가시던 달콤한 놀이터였다. 어린 시절 나는 빨간 우체통이 큰 쓰레기통인 줄 알고 떨어진 과자 봉지를 주워 넣어 보기도 했다. 그런데 아무리 넣어도 배고픈 것처럼 꿀꺽 삼켜버리는 모습에, ‘오호라~ 이 빨간 통은 우체국이 키우는 먹보 마법 괴물이구나!’ 믿고는 무서워 피해 다니기도 했다. 나의 엉뚱한 상상은 초등학생이 되어서야 편지를 보내는 우체통임을 알고 창피했지만, 할아버지와 함께한 추억들은 언제나 달콤했다.

우체국 의자에 앉아 양볼에 사탕을 오물거리면 외할아버지는 시골 무주 안성우체국장님이셨던 증조할아버지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어려운 이웃과 베풀며 굶은 날씨에도 자전거로 힘들게 배달하시는 직원들에게 사택을 내어주실 만큼 직업을 명예롭게 여기셨지만, 퇴직하실 땐 너무나 슬픈 일이 일어났다. 그해 겨울, 당시에 갓 태어난 우리 엄마가 감기라도 걸릴까 봐 솜이불을 자전거에 가득 싣고 오시다 불의의 사고로 마지막 인사도 못한





2026

접수번호

우체국 문화전

제34회 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글짓기 대회

응모구분

제 목

채 하늘로 떠나셨다는 사연이었다. 할아버지가 우실 것 같으면 나는 “하찌! 이 얘기 100번째야!” 하며 탄성을 피웠다. 그때는 이 이야기들이 당연한 일상인 줄 알았는데, 작년 겨울 할아버지가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셨을 때 나는 하늘로 가버릴까 봐 너무나 무서워 간절히 기도했다. 기적처럼 회복하신 할아버지는 지금 다시 내 곁에서 옛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다. 이제는 수천 번 반복되어도 내겐 가장 듣기 좋은 소리이다. 난 이제 안다.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반복하신 이유를. 증조할아버지가 보여 주신 사랑을 우리 자손들도 이웃과 나누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 거였다. 이제 증조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은 내 가슴속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 내게 우체국은 삼 대의 숨결이 담긴 시공간을 넘나드는 소중한 타임캡슐이다. 나는 할아버지가 더 건강해지셔서 예전처럼 우체국 의자에 나란히 앉아 할아버지의 빛바랜 옛이야기를 다시 전해 듣고 싶다. 먼 훗날 내가 할머니가 되면 이곳 우체국 의자에 앉아 내 손녀에게도 외할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전해 줄 것이다. 그때도 변함없이 사랑 내음, 사탕 내음, 추억 내음 가득한 우리 동네 행복의 장소인 우체국으로 영원히 남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